

투데이 칼럼

실용외교로 국익 극대화

최근 국내 어느 언론사가 통일부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5 한반도 심포지엄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트럼프 2기 외교안보·통상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실용외교’로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는 전례 없는 글로벌 경제·안보환경의 대전환기에 돌입했다”고 진단했다. 대통령은 전략적 접근과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일, 한중 협력을 다지겠다고도 강조했다. 실용 기조는 남북관계에서도 이어졌다. 대립을 극복하고 평화를 이룩할 실질적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계 미국 상·하원 의원들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들은 관세 인하로 경제적 파트너십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으로 규정하며 한미가 ‘힘을 통한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의 성공은 한미동맹의 틀을 깨는 방식으로는 어렵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이완된 동맹’(loosened alliance)은 한국이 놓인 안보 환경에선 효과적인 방안이



정복규
논설위원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는 동맹에 편중된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에 일부 ‘균형’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화·대화 중심의 대북 정책 △미중경쟁 사이 전략적 공간 마련 △미국의 분담 요청을 기회로 한국의 전방위적 억제 능력 확보 등을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외교·안보 정책 3가지로 분류했다. ‘북러 밀착’ 국면 속에 북한과의 평화 조성 가능성은 어려운 과제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실용·균형적 접근을 수용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동맹관계에서 균형을 찾는 방식으로는 한국의 전방위적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미국이 한국의 ‘안미경

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방식의 접근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이 가능성은 매우 낮다. 대중 외교를 전개하는 방식에서 미국의 우려를 살 경우 한미동맹에 마찰이 생길 소지가 있다. 적국의 도발을 억제하려면 미국의 역외 구상에 대한 어느 정도의 동조가 요구된다. 미국의 대중 견제 요구에 한국이 일정 수준 동조해야 한다. 트럼프 2기에서 주한미군의 전면적 축소와 같은 급진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선 긴밀한 협의·소통을 통해 주한미군의 변화에 따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보강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를 해야 한다. 오랜 우방국인 미국에 대한 협력은 필수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았다. 군사 안보 중심의 동맹 관계가 앞으로 경제 안보와 첨단 기술, 국제 현안을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통한 경제 협력 확대가 그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몇 년간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수신했던 투자를 통해 경제 안보가 한미 동맹의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됐다. 첨단기술 동맹으로 확장될 필요성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우주 분야뿐만 아니라 바이오기술, 양자,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도 협력의 범위를 넓혀줄 것으로 기대한다. 과학 협력은 미국과 한국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많은 다른 분야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안보가 주축이었던 한미동맹은 기술 개발, 투자 협력 등으로 진화해야 한다. 동맹 범위를 정치와 군사, 경제적 동반자 관계뿐 아니라 기술적, 문화적 차원까지 확대할 때이다. 한미동맹의 전환기가 동맹 관계의 이완으로 인한 대북 억제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추모벽에 걸린 돌발 홍수 희생자들 사진



지난 10일(현지 시간) 미 텍사스주 커빌에 마련된 돌발 홍수 희생자 추모벽에 희생자들의 사진이 꽃과 함께 걸려 있다. 지난주 텍사스 중부 지역을 덮친 폭우와 홍수로 지금까지 사망자는 121명, 실종자는 17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실종자가 많아 사망자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와 보우소나루, 민중의 적”



지난 10일(현지 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시위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의 사진에 ‘민중의 적’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있다. 시위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산 제품에 대해 50% 관세를 결정할 것에 분노해 시위를 벌였다.

사설

대북 전단 살포 중지

남북 피해자 가족 모임이 경기 과주시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공식 선언했다. 남북자가족모임은 지난 8일 과주시 임진각 한반도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야외 쉼터에서 과주시와 대북 전단 살포 중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남북자가족모임은 “피해 가족들과 논의 끝에 대북 전단 살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회견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지만, 이 정부를 믿고 더는 소식 알자,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도 협력의 범위를 넓혀줄 것으로 기대한다. 과학 협력은 미국과 한국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많은 다른 분야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안보가 주축이었던 한미동맹은 기술 개발, 투자 협력 등으로 진화해야 한다. 동맹 범위를 정치와 군사, 경제적 동반자 관계뿐 아니라 기술적, 문화적 차원까지 확대할 때이다. 한미동맹의 전환기가 동맹 관계의 이완으로 인한 대북 억제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진행했다. 그러나 점경지역 주민들,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에 지난 4월 27일 과주 임진각, 5월 8일 강원 철원군, 6월 2일 과주 점경지에서 각각 대북 전단을 비공개로 날린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남북자가족모임을 상대로 한 시민단체들의 가처분 신청과 고발, 경찰 수사 등이 이어졌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소송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북 전단 살포가 점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북한의 무력 도발 위험이 전국에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남북 관계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행위를 금지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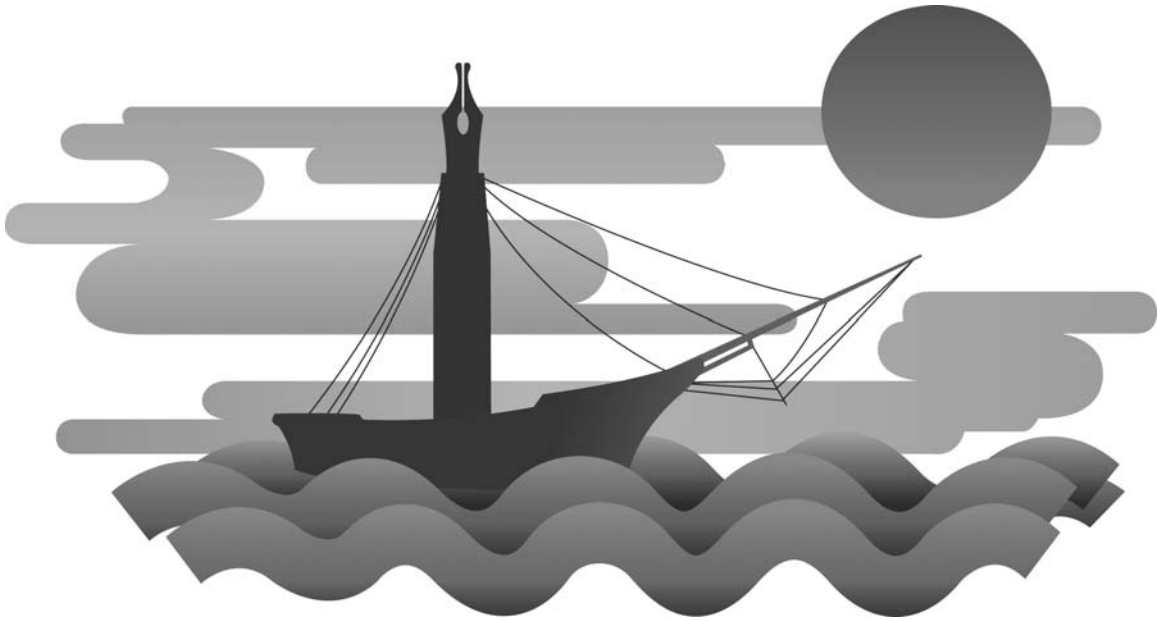
제1회 평화동 학산 만내골 한마당 축제

‘제1회 학산 만내골 한마당 축제’가 지난 6월 28일 전주시 평화동 신성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다양한 공연 순서가 이어졌다. 시낭송을 비롯 우수 시범공연, 에어로빅, 가요, 시범공연 고교장구, 시범공연 춤바밴드, 민요, 시범공연 도담 태권도, 통기타 공연 등이 분위기를 한층 띄웠다. 요즘 전주 평화동과 서학동 주민들의 숨결이 가득한 학산(鶴山)은 나날이 질푸른 녹음으로 변화하고 있다. 학산은 아름답고 고고한 선하미 살았던 곳이기도 하지만 산 능선이 학의 날개처럼 드리워진 산이다. 학산에는 삼국시대 이전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있을 뿐만 아니라, 후백제 건국과 조선 왕조 발상의 배경이 되었을 만큼 유서 깊은 자취가 많이 있다.

산 아래에는 학과 같은 백성들이 누대에 걸쳐 정겹게 살고 있다. 이처럼 유서 깊고 아름다운 학산 품에 안겨서 시민과 함께 ‘제1회 학산 만내골 한마당 축제’를 마련했다. 이는 서학동과 평화동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함께 모여 친목과 우의를 다지면서 즐기는 이웃들의 잔치다. ‘학산’을 사랑하는 모임 ‘인 학사모’ 회원은 학산이 지역 주민의 친숙한 삶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학산의 역사성에 기반한 문화와 예술을 재발견하고, 치유와 힐링의 주민 삶터로서 학산이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특히 이곳 학산에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하여 이 지역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배려하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도 주문한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